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담당 국장

인구 140만 명의 샌디에이고시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통한다. 연중 온화한 날씨,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환경 등은 많은 미국인들의 로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800만 명(2022년 캘리포니아 관광청 기준)이 다녀간 게 이를 방증한다. 그중에서도 예술과 축제 등을 '메인 상품'으로 묶은 아트 투어리즘(Art tourism·예술관광)은 샌디에이고의 핵심 콘텐츠다.

지난달 중순, 기자는 샌디에이고의 관광 1번지인 '발보아 파크'(Balboa Park)와 라호야 해변(La Jolla Cove)을 방문했다.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글로벌 명소인 만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는 내 예상은 적중했다. 바로 '미술관'이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발보아 파크는 각각각색의 미술관들로 활기가 넘쳤고, 태평양이 바다로 보이는 라호야는 산책로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으로 더 빛났다.

관광객 1300만 명 찾는 발보아파크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배인 발보아 파크는 수십 여개의 문화시설에서 연중 전시, 연극, 뮤지컬 등 각각각색의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 지역민들에게는 반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쉼터'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골라 보는' 재미가 쏠쏠한 복합테마공원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수준의 동물원과 18개의 미술관(박물관)이 '하이라이트'다.

은편칼럼



옥영석 충청경제지구 마트전략부장

흐린 가을 하늘에 비가 내리던 주말, 가족들을 태우고 오랫동안 근교에 나왔다. SNS를 통해 전해오는 광주 상무지구 김치축제와 해남의 미남축제를 갈 수 없어 속이 쓰렸지만, 장대비를 피할 겸 요즈음 핫하다는 베이커리 카페에 들렀다.

빵집에 가면 늘 고르는 것이 고로케다. 본래 서유럽의 크로켓이 일본에 들어와 변형된 요리로, 감자를 으깨 쇠고기나 햄, 치즈, 파스타류나 갖가지 야채를 섞어 밀가루 반죽을 입힌 다음 튀겨낸 것이다.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넣은 동네 선술집안 주거리로, 이탈리아에서는 고기 내장에 쌀 옷을 입힌 아란차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벨기에에서는 새우를 넣어 만든 것을 1차 대전에서 군인들이 즐겨 먹어 보편화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송아지고기와 감자를 섞어 가장 대중적인 길거리음식이 되었다.

식구들은 어쩔 수 없는 촌스런 입맛이라고 놀려대지

기고



박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손주 녀석들이 학교갑 준비에 바쁘다. 책가방을 예쁘게 매고 학교 가는 모습은 아름답다. 내 손주들이 학교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내 손주다. 한결같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학교가는 아이들은 행복한 얼굴이다. 이제는 학교 밖에서 학교를 본다. 어떤 이는 '한번 떠나온 학교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하다. 내가 지나왔던 학교를 생각하면 고향같은 따스한 기운이 들고 그 곳의 소식이 궁금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지금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기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제자들 소식은 궁금하지만 '교사는 제자들이 훌륭히 성장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지키고 있다.

작품에 들리는 학교에서의 잠으로 안타까운 학풍이나 사회적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면 먼저 걱정하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나의 힘이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오지랄 넓게 나혼자 공시렁 거리고 있는 때도 있다. 왜 이렇게 걱정스런 모습이 학

미술관 옆 동물원

이 가운데 공원의 한복판에 터를 잡은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800여 종의 동물 4000여 마리와 식물 6500여 종이 공존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다. 자녀를 둔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꿀잼 장소'다. 하지만 대다수의 발보아 관광객들이 들르는 곳은 공원 입구에 자리한 '샌디에이고미술관'(Sandiego Museum of Art)이다. 2층 규모의 미술관은 화려한 외관과는 거리가 멀지만 컬렉션 만큼은 LA나 뉴욕의 유명 미술관들에 결코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창가에서 애청 작업을 하는 자화상', 앙리 마티스의 '부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자' 등 기원전 3000년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컬렉션 2만여 점은 '대체불가'의 킬러 콘텐츠다. 특히 휴가시즌 등에 맞춰 내놓는 특별기획전은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이끌어 내는 일등공신이다.

샌디에이고에서 비행기로 1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샌프란시스코도 '예술 관광'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도시였다. 연간 2190만 명(2022년 샌프란시스코여행협회)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 케이블카(노면 전차) 등 소문난 관광지가 많지만 한해 300만 명이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골든게이트 공원(Golden Gate Park)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20% 넓은 공원에는 20여 개의 정원과 호수, 식물원, 공연장 등이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문화 보고'(Culture Treasure)로 불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드영 미술관'(드영)이 있다.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헤르조그 & 드뫼퐁이 건립한 '드영'은 빼어난 건축미와 독보적인 소장품으로 매년 100만 명의 관람객들을 불러 들이는 '달라 박스' 역할을 한다. 입장료는 20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지출하는 숙박비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10여 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두개의 '빅 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부산의 '이기대 문화예술

공원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의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사업'이다. 지난달 말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이기대 수변공원을 바다와 자연, 예술이 하모니를 이루는 세계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로하고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에게 미술관 설계를 의뢰했다. 동시에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분관도 유치해 이기대 공원을 부산 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가꾸어나간다는 복안이다.

광주의 미래, 예술관광에 몰여봐

최근 광주시도 신세계퍼파티와 손잡고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6만평) 일대를 쇼핑, 엔터테인먼트, 휴양, 레저, 문화 등을 한데 모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를 내지 못해 '이름뿐인' 문화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광주관광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광주는 시립미술관 등을 비롯한 공공 미술관과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다양한 미술이벤트를 관광지와 묶는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미술관에서는 보기 힘든 '대표작'이 미흡하고 수십여 원의 예산을 들인 메가 미술 이벤트들은 흡인력 있는 콘텐츠 부재로 '노잼'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꿈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동적인 미술 현장과 연계시키는 '빅 픽처'가 필요하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소비 지형적인 콘텐츠로는 무색무취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힘들다. 지금은 문화광주가 선택과 집중의 로드맵을 짜야 할 때다.

음식은 추억으로 남는다

만 내가 늘 그 느끼한 빵을 집어 드는 데는 나름 사연이 있어서다. 고등학교 1학년, 기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통학하던 내겐 방과 후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어느 날 방앗간 집 큰아들 일우라는 친구가 느닷없이 빵집을 가지고 성화였다. 군것질이라고 교내 매점이나 학교 앞 분식집이나 들락거리던 터에 빵집이라니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 나섰다. 동생과 둘이 자취하던 그 친구는 인근에 사는 외할머니가 밤이며 빨래며 살림을 다해 주는데다 공무원 외삼촌이 용돈도 두둑이 주는데, 전날 제과점에서 고로케를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더라는 것이다. 배고픈다리를 지니 학동 사는 친구와 셋이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전대병원사거리 제과점, 기대했던 고로케는 맛을 떠나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던 내겐 다졌다고는 해도 식감이 별로였던 데다, 잡채며 야채가 느글느글한 기름범벅이었기 때문이다. 여름내 뽕고추에 된장만 찍어먹던 열일곱 시골뜨기 입맛에 맞을 리 없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빵집에 갈 때마다 고로케를 집어 들고 또 집어든다. 이젠 제법 입맛에도 맞거니와 소에 든 내용물이 쇠고기인지, 햄인지, 크림과 고기소스나 잡채와 파스타류를 혀끝으로 구분해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자 내 손을 잡아끌던 어릴 적 친구의 마음이 빵가루

보다 더 아삭거리기 때문이다.

팔죽을 먹을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칼국수 말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면 음식은 곧 추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집안 조카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 피붙이에게는 더 소홀했던 큰어머니는 라면을 끓일 때마다 늘 잠거품을 몇 방울씩 떨어주셨다. 잠깨라면을 먹을 때마다 큰어머니의 많이 먹어서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넷에 대학생 조카들을 작은 방에 들여, 도시락 여섯 개를 싸면서도 늘 웃는 얼굴이던 사촌 형수님은 장어탕을 잘 끓여냈는데, 아무리 유명한 장어집에 가도 그 맛을 내는 식당을 찾을 수 없다. 목포의 명물 송골매보다 달콤한 음식은 천지에 넘쳐나지만, 좋아한다는 말 한번 못해 본 친구와 나눠먹던 그 아스라한 기억은 어떤 초콜릿, 어느 케이코드 소환해 오지 못한다.

음식은 먹을 때의 맛도 중요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남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동안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다. 어쩌면 음식이 가진 가장 빼어난 힘은 맛을 추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니 나는 누구에게 그런 기억을 한번이라도 갖게 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나만 먹고, 식구만 챙기고, 혼자 살기에 급급해, 친구와 후배들에게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는지 차가워지는 바람 못지않게 마음이 더 으스스해지는 늦가을 오후다.

학교 밖에서 본 학교

교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요즘은 학교에서 담임 맡기를 꺼린다한다. 학교생활에서 담임의 임무가 잠으로 많다. 어려운 일들은 거의 담임의 임무에서 발생한다. 학부모들의 요구나 옛날같지 않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는 시대의 변화보다 더 빨리 격정스럽게 되어가는 모양이다.

담임의 임무가 힘들고 성가신 일이 많으니 당연히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지나고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 경험들이 아름다운 삶의 한 장면으로 선명하게 떠오른다. 조금은 힘들어도 자기에게 소속된 학생들이 있음으로 보람이 쌓인다. 서로 담임 맡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지난날이 더 활력이 있는 학교생활이었나보다. 왜 담임에서 배제하냐고 1인 시위하는 선생님도 있었으니 지금과는 아주 다른 시대였던가 보다.

학교 밖에서 본 학교는 간혹 들리는 극성스런 학부모들과 거친 학생들로 인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짙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자랑스럽게 생활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우리 사회의 밝은 햇살이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한 것이다. 학교는 희망의 꽃이 피는 정겨운 화원이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희망에 부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화원이다. 어쩌다가 좌절할 경우라도 혹은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이 괴롭게 하더라도 그 과정은 분명 긴 인생 길에서 겪어야 하는 아름다운 고통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나온 학창시절은 사람마다 달리 추억하겠지만 그리움이 늘 남아 있는 곳이다.

누구나 학교라면 떠오르는 기본 소식들로 가득한 곳이다.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종알종알 때로는 바빠 바빠 저마다 소망을 가득 안고 우뚝한 곳에 모인다. 학교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추억들을 불러와 어느새 그리움을 가득가득 가져다 놓는다. 학교는 언제나 희망의 꽃이다. 여기에는 학교폭력도 왕따도 교권침해 사례도 없는 행복한 모습의 학교만 있기를 희망한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는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영글어 있다. 그 햇살 아래에는 우리 사회를 수준 높게 변화할 많은 요소들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빛나 보인다. 그곳은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라는 곳, 다시 가고 싶은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이다. 선생님의 열정과 소망이 밝은 학생들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 이는 우리 사회를 밝게하는 시작임이 분명하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혜로운 선생님들의 힘으로 밝게 변할 것이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생님! 좀더 힘내시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선생님 곁에는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학생들이 활랑활랑한 눈동자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희망입니다."

社說

지방소멸 촉진하는 '메가 서울' 정책 폐기해야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른바 '메가 서울' 논란인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역행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메가 서울 논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던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속이 뻐히 보이지만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메가 서울 정책을 내놓은지 1주일만에 서울뿐 아니라 비(非) 수도권 거점 도시를 주변과 묶어 키우는 '뉴 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만 키운다는 비판이 일자 폭을 넓혀 '메가 시티' 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중소 도시의 쇠락을 가속해 해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역효과는 마찬가지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능사 아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총 236대의 이동형 CCTV를 운용하고 있다. 주로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됐다. 한 대당 가격이 평균 4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단속 실적은 투입된 CCTV 예산에 비해 미미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0월) 5개 자치구의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북구 6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자치구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원인이란 이동형 CCTV가 단속 장비로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CCTV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 불법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도 불가능하다. 신고를 받고 투입된 구청 쓰레기 투기단속 기동반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발견해야 적발할 수 있다.

1982년 12월 수도권경비계획법 제정이후 역대 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과밀 억제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에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돼 대한민국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메가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40년 이상 지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메가 서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파이를 키우겠다는 메가 시티 전략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메가 시티 전략은 야당도 한때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 시티 정책을 추진한바 있는데 소도시와 읍면 단위 농어촌의 쇠락을 앞당길 우려가 큰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無等鼓**

'빈대도 낮찍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빈대와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들이 꽤 있다. 그만큼 과거에 빈대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곤충이다. 식물을 말려 태워 그 연기로 빈대를 잡으려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죽했으면 속담으로까지 만들어 내려왔을까 싶다.

1980년대까지 기승을 부렸던 토종 빈대는 매년 살충제를 뿌리고, 국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거주 양식이 바뀌면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지저체와 방역당국이 골

오는 곳을 찾을 때까지 한 번에 여러 곳을 이동하며 무는 것이 특징이다. 납작하고 작다는 신체적 특성을 살려 낮에는 벽의 틈이나 침대 이음새 등에 숨어있다가 밤의 어둠을 틈타 활동을 한다. 빈대에 물린 자국은 평평하게 부어오른 붉은 발적으로 나타나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빈대는 많은 양을 흡혈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빈혈과 고열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 서식성 곤충이어서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서식하기 때문

**빈대**

이다. 겨울철 각 가정마다 난방을 하게 되면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꾸렸다고 한다.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가 본격 나설것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침대 매트리스 일광건조와 세탁,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등 개인적인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